

제19차 세계표준협력회의 (GSC-19)



위규진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임희성 TTA 표준확산부 선임연구원

1. 머리말

제19차 세계표준협력회의(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ITU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GSC 회원기관인 한국(TTA), 일본(ARIB/TTC), 미국(ATIS/TIA/IEEE-SA), 중국(CCSA), 유럽(ETSI), ITU, 인도(TSDSI) 10개 정회원 기구와 3GPP, 4G Americas, EC, TCCA 등의 초청기관, 그리고 GSC 회원으로의 가입을 요청한 IEC, ISO를 포함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재난통신(Critical Communication), 사물인터넷(IoT/M2M), IMT-2020/5G 3개 전략주제 및 기관별 표준화 우선순위 분야 등 기관이슈를 중심으로 정보공유 및 표준화 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계표준협력회의는 표준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세계 주요 표준개발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 방향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표준화 협의체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래 사회의 핵심 표준화 대상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관 간의 표준개발 정보 및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표준 개발의 중복 방지 및 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GSC는 3GPP/3GPP2 등 표준화 기관 간 협력 프로젝트를 탄생시킨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능동적이며 전략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회의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이슈 신기술로써 빠른 표준화 전략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Critical Communication, IoT/M2M, IMT-2020/5G 3개의 분야를 전략주제로 선정하여 해당 주제별

세션 논의가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회원 표준 화기구 뿐만 아니라 초청한 업체/기관의 발표가 있었으며, 질의응답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재난통신(Critical Communication)

지난해의 재난구조 발생 상황을 위한 공공안전 서비스 통신시스템, 대규모 공공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논의에 이어 금년에도 논의가 진행되었다. 금년에는 기관 간 통신(A2A, Authority to Authority), 개인-기관 통신(I2A, Individual to Authority)에 대해 일부 기관들(미국, 일본, 유럽, 한국)과 관련 협의체(3GPP, TCCA, NTIA/ITSP)의 경험 공유 및 세계표준협력회의(GSC) 재난통신 전담반(Task Force)의 활동보고가 이루어졌다.

TTA는 한국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LTE) 구축계획을 소개하고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3GPP에서의 적기 표준화를 위해 타 민간 표준기관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GSC 표준기관들은 국제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재난통신 LTE 표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기 표준화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재난통신 LTE 표준의 성공을 위해 전용 주파수할당, 규제 및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2.2 사물인터넷(IoT/M2M)

성공적인 사물인터넷의 여부는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의 존재와 관련된 규모의 경제에 달려 있음에 따라, 현재 ITU-T, oneM2M, OIC, IETF 등 다양한 기구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IoT 표준화 활동을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협력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IoT의 핵심은 타 산업과의 융합과 표준화 협력이 중요하며, ICT 이외

관련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성공적인 IoT 표준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GSC 참여 기관의 협력 프로젝트인 oneM2M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여 통일된 표준화 추진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고 관련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본 세션은 처음으로 분임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세션 중재자(ETSI)의 가이드에 따라, GSC-19 참석자들이 기관별 골고루 구성된 6-8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나뉘어 같은 질문에 대해 논의 후 그룹별 결과를 공유한 방식이었다.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분임토의식 토론이 유익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GSC 회의에서도 계속 활용하기로 하였다.

2.3 IMT-2020/5G

마지막 세션으로는 5G 이동통신 이슈가 논의되었다. 잠재적인 5G 기술의 연구 개발은 다양한 산업계, 연구계, 학계에서 논의되고, 특히 5G가 미래 초연결사회의 핵심기술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 표준화 활동을 공유하였다. 특히, GSC-19 참가자들은 5G의 표준화 비전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협력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5G 기술 생태계의 관점, 표준화, 구현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한편, 목표된 5G 표준화 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활발한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 동의하였다.

더불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표준화 기관은 겹분석 정보에 대해 추후 공유할 예정이다.

2.4 수석대표(HoD) 회의

회의 기간 중 두 번(2015. 7. 14, 7. 16)에 걸쳐 진행된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금년 GSC 회원으로의 가입을 요청한 IEC, ISO의 신청에 대한 논의 및 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IEC, ISO는 GSC의 원칙인, '모든 회원기관은 평등권을 가진다'를 지지하고, 표준화 분야의 국제적 선도 기관으로 GSC 회의에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피력하였다. 이번 회의에 신청한 회원 가입 건은 향후 논의 후 내년 GSC-20 회의에는 회원으로서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IoT/M2M 향후 표준화 방향에 대해 수석대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2.5 개도국 표준화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ITU-TTA 협력 협정개정 체결

TTA는 ITU와 개도국 표준화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협력을 2008년부터 해오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금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협력협정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다. 본 협력협정에는 적합성 평가(및 상호 운용성) 제도에 관한 협력사항을 추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개도국의 적합성 평가제도 구축 시 모범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제도의 제시와 함께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좋은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TTA는 동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ITU와 공동으로 표준화지역워크숍 개최 및 개도국표준화자문 등의 다양함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ICT 역량 강화와 글로벌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맺음말

표준은 기술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과 성과의 공유를 통해서만이 명실공히 성공한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수립할 때 기술 경쟁력과 함께 다른 표준화 기구와의 조화로운 협력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TTA는 지속적으로 세계표준 협력회의 등의 회의를 통해 다른 지역/국가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차기 제20차 회의는 인도의 TSDSI의 주최로 2016년 4월 27일~28일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